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어려워도 균형재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재경부 업무보고 때 재정 집행은 항상 융통성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산처 장관은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균형재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정책의 지표로 이용해달라는 김효석 의원(제2정조위원장)의 얘기를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처는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을 조정하고, 또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책임이 큽니다.

예산 편성시 각 부처의 담당자들로부터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가 바로 국가발전 또는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분권적 재정제도 확충방안도 연구해주십시오. 또한 사회의 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주십시오.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예산처가 입안을 해 계획을 제

출해볼 수 있는 과업입니다. 감사원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해보십시오.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면 지방재정이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잘 짜인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지방재정을 이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정 분권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